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여성정치, 새로운 축제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

여성이라는 변수가 신선한 매뉴로 등장해 즐거움을 안겨주는 축제의 정치를 여성후보들에게 기대해본다.

”

‘여성성’이란 정체성

프랑스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이렌 투아얌은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페미니스트이다. 그녀는 남성의 행복을 위해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의 여성지도자들에게 페미니즘은 삶의 방식이자, 정치인 이미지이고, 선거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추세는 여성 대선후보 풍년을 맞은 한국으로도 이어진다.

가진 한명숙 전총리는 총리의 경험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여성모두의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어머니 리더십, 여성리더십으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나가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신념을 보이고 있다.

여성정치인인면 당연히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들이 여성성을 이렇게 당당히 드러내고 사회생활의 전략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불안한 정체성을 없애버렸던 것이 문명에 순종하는 대부분 여성들의 선택한 ‘여자의 일생’이었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인 환경에서 항상 튀거나, 이질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우거나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소수자로 살아야 했다.

18일 총리 퇴임 기념식 연설에서 한명숙 전총리는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겁났다. 여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여성비하적 공포감을 느

꼴”고 말했다. 자신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최초의 여성총리를 향해 ‘얼굴마담’ ‘대독총리’로 보려는 집요한 시선이 있음을 느껴야 했으나 빠른 시일에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 후보들에게 바라는 기대

한 전총리의 솔직한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사회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내면적으로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내야 했다.

대형급 여성 지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현실이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축제의 의미를 갖는다. 불안감을 이겨내고 당당한 자신감을 가진 여성들이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고



허성관

지역전문 광주일보가 창사 55돌을 맞아, 중앙에 비해 산업적 문화적 토양이 척박한 지방에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정문지필, 지역민과 함께 동고동락 해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전문이 하늘의 명령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을 넘고도 다섯 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지역은 지역의 미래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면한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민들의 자제가 무엇인지 되짚어보았으면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우리 지역은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배려했으면 한다. 그래서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속의 광주·전남으로 우리지역이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 각 부문의 지도적 인사들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지역 각계각층의 리더와 단체, 지역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이 아닌가 한다. ‘정부(government)’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활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뜻한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사회단체, NGO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적 통치’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급속화되면서 기존의 전통적 ‘정부’에 의한 통치 개념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사회체제의 유지가 힘들어진 시대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터이다.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음을 정부나 시민단체나

광주일보가 지역희망 선도하라

고 이를 실현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우선적으로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2007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미 독재대 민주 또는 좌파 대 우파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 등과 같은 정치적 이념적 이분법을 뛰어넘어 세계화 속에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 내야하는, 제2의 역동기를 창출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물론 민주화투쟁의 선봉에 서서 독재세력을 극복하고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민주화의 달성으로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분법의 틀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빠져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누구보다도 우리지역의 힘이 컸음은 물론이다.

이제는 이런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광주·전남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다시 손을 맞잡자는 얘기다.

지역역량을 끌어보면 우리지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되고 있는 듯하다.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서남해안 및 J프로젝트), 산업의 첨단과학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연구개발 특구지정 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설, 그리고 지역인재양성이 그것이다.

키워드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들을 잘 엮어서 상승효과를 거두려면 더욱더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단체 모두가 깊이 자각해야 한다. 거버넌스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다시 언론에 있지 않을까 한다.

최근 들어 광주가 첨단과학기술의 도시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흥에는 우주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이 지역의 미래를 밝히듯 지역 언론, 그중에서도 광주일보가 지역의 희망과 미래를 선도하는 주축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광주·전남이 세계에서 가장 희망차고 역동적인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

〈광주과학기술원장〉

- ▲1947년 마산 출생
▲동아대 상과대 졸
▲미 뉴욕주립대 MBA·박사
▲한국 회계학회 회장
▲2003 해양수산부 장관
▲2003~04 행정자치부 장관
▲2005~ 총리실 정책평가위원장
▲청조근정훈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오봉주.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가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듯 평균수명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삶을 사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은 상대적으로 짧다.

기고 김희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고통이나 문제가 사회 전반의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들만 모여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게 된다. 청각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청 청인의 문화와 지식이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호화판 모델하우스 할리·실용적 대안 없다.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지어 공개한다. 하지만 단순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1회용의 가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無等鼓. 해발 1,507m 지리산 노고단의 군(軍) 부대가 철수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 후 공수부대를 파견, 대응 훈련을 실시한 지 40년 만의 일이다. 본격적인 군 주둔은 1974년부터 시작됐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博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